



주일 예배 후 한인 헬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백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가족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연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운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형제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자매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다문화	미정	강교현	수 10am	
	미정	김행자	금 10:30am	
	나진	김릴리	수 4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 수요일: AWANA 6:30-8:15pm
-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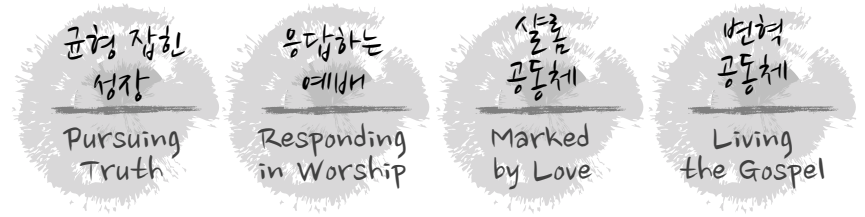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헬로우십홀)



봉사 당번 안내

	2/19	2/26	3/5	3/12
헬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장경림, 최설아 / 김새롬, 전해경	장경민, 박주애 / 박영미, 윤재연	임은숙, 최정아 / 이찬미, 황진희	임은숙, 최정아 / 이찬미, 신윤선, 이주영
주차 봉사	변상윤/Tom Flynn	이종천/김민수	Rick Geib/대호	Chris Steenkolk / 이장춘
예배 안내	미연 (2월) & 105도/사하라 (3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무엇이 보이느냐

The Revealing of Christ: What are you seeing?

본문: 마가복음 8:22-26
설교: 최규진 목사

마가복음 8장 22-26절

- (21절) 그리고 그들은 벳새다로 갔다. 사람들이 눈먼 사람 하나를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 (23절) 예수께서 그 눈먼 사람의 손을 붙드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 두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서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 (24절) 그 사람이 쳐다보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습니다."
- (25절) 그 때에 예수께서는 다시 그 사람의 두 눈에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이 뚫어지듯이 바라보더니, 시력을 회복하여 모든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 (26절) 예수께서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는 본문의 내용은 다른 병고치심의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침을 뱉어 안수하셨을 때는 뿌옇게 보였으나 두번째 안수하시니 모든 것이 확실히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셨을까요? 아니면 맹인의 믿음이 부족하였던 것일까요?

마가복음 전체를 본다면 두번째 안수가 필요하였던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는 시간순대로 쓰여 있지 않고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의 신학적 의도/강조점을 염두하며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은 크게 세가지 섹션으로 분류가 됩니다: (1) 갈릴리에서의 이야기, (2)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그리고 (3)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 마가복음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시는 예수님, 즉, 예루살렘에서 보이신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맹인을 치유하시는 사역은 흥미롭게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의 여정 섹션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 등장합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맹인 치유 사건을 처음과 마지막에 넣음으로써 무언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의 마가복음에는 “주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자신있게 “주는 메시아입니다”라고 이야기 하는 듯 하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즉 십자가에 죽임당하신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대로만 예수님을 이해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지만 십자가의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맹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두번째 안수가 필요했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눈으로 보게 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곧 십자가의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성취하신 새로운 현실을 깨닫고, 받아들이며, 누리는 것, 즉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죽고나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고,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진짜 그 관계를 누리고 있습니까?

진짜 이미 임한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려가고 있습니까?

삶으로 말씀읽기:

1.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 성도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습니까? 그 관계를 진짜로 누리고 있습니까?
3. 우리의 눈을 열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변화가 있습니까?

빌리지 알리판

@ 한인부

1. 2017년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2017년 봄학기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와 한인 헬로우업에서 별도의 안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등록은 3월 5일 (주일)까지 헬로우업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	일정	기간	인도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1)	개별논의	4주	개별논의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자 훈련	개별논의	4주	최규진 목사
변화의 삶	주일 2-4pm	11주: 3/12 - 5/21	이장춘 형제
구약의 숲 (역사서)	주일 2-4pm	11주: 3/12 - 5/21	최규진 목사

2. 한인부 MID Group

MID Group (Mobilization in Discipleship)은 빌리지 한인부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일반 목장에 참여하시는데 특별한 제약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중그룹 공동체입니다. 자세한 안내는 목회칼럼과 별지를 참조해주시길 바라고, 성도님들의 참여와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 정기모임 일정: 매월 첫번째와 세번째주 금요일 오전 9:30-11시
- 첫 모임: 3월 17일 (금) 오전 9:30-11시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Willamette)
- 문의: 이종천 형제

3. 제2기 포틀랜드 카이로스

제2기 포틀랜드 카이로스 선교훈련에 성도님들을 초청드립니다. 카이로스는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40여개 언어로 시행되고 있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교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가치와 초점을 재조명하는 것을 돕는 훈련 과정입니다.

- 일시: 3월 7일 (화) -11일 (토), 9am-6:30pm (단, 토요일은 정오 종료)
- 참가비: \$120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 등록 (온라인): kairos.vbconline.org

4. 이슬람 세미나: '우리의 친구 무슬림'

지난 2월 3-5일에 있었던 이슬람 세미나, '우리의 친구 무슬림'에 참여하신 분들 중, 수량 부족으로 인해 교재를 수령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 헬로우업 옆 테이블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5. 날마다 솟는 샘물 (9월호)

9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헬로우업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4/권).

@ 가족 공동체 소식

1. 장례

황호세 형제님의 부친 (황지현 자매님의 시부)되신 故 황규연 성도님께서 지난 2월 18일 캐나다에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 1) 빌리지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을 위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들 사역을 담당하시는 빌리지 스텝, 목사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2) 이웃의 학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선생님들을 위해 그들에게 필요한 능력과 재원과 열정과 인내를 채워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 가족 예배 (2/25,26)

오는 2월 25,26일 주일 예배는 가족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Promiseland와 중등부 모임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차기 담임 목사 청빙 진행사항 보고 (2/25, 7pm, 2/26, 12:30pm @ Willamette Rooms)

오는 2월 25일(토), 26일(주일), 청빙위원회가 차기 담임목사 청빙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질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4. Ash Wednesday 셀라 예배 (3/1, 7pm @ 대예배당)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이란 부활절 직전 40일을 가리키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속죄의 의미를 기억하는 Ash Wednesday 셀라 예배에 참여하여, 뜻깊은 사순절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일 한인 수요예배는 없습니다.

5. 미로 기도회 (Worship Labyrinth) (3/6-10, 5:30am-10pm @ 대예배당)

빌리지 미로 기도회는, 미로를 지나면서 곳곳에 마련된 스테이션에 머무르며, 안내문을 따라 묵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돕고자 하는 취지의 기회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어 트랙이 있고, 총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로비나 labyrinth.youcanbook.me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 중고등부 Willamette Valley 파이 모금 행사 (2/12-26)

중고등부에서 사역 기금 마련을 위하여 핸드메이드 파이를 판매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3월 14일(화) 오후 교회에서 픽업 가능합니다. (문의: Beth, bethe@vbconline.org)

7. 2017년 중고등부 수양회 (Theophilus, 7/1-4 @ Multnomah University)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Theophilus가 올해는 여름, 7월 1-4일 포틀랜드에서 열립니다. 2월 10일부터, 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리더로 섬겨주실 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연락: Dan Son, dans@vbconline.org)

- 비용: \$129 (2/10-4/9 등록시), \$169 (4/10-6/11 등록시)
- 등록: theophilus.info

8. 클렘투 (Klemtu) 단기선교 (7/26-8/11)

클렘투는 브리티시 콜럼비아 중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빌리지 고등부 학생/청년들은 매년 프로그램, 캠핑, 게임, 이벤트를 통해 그 곳 아이들과 교제하고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2/25, 26 이전에 등록 바랍니다. (문의: Andrew Matteson, matteson@naim.ca)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목회칼럼

최규진 목사
Pastor for Korean Ministries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요일1:3).”

우리가 지난 몇주간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 함께 묵상한 요한일서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그것을 ‘사귀 (fellowship)’이라고 표현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사귀이고, 또 동시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의 사귀이 곧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누리는 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되는 채널이라고 말입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 인격적 관계 안에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인격적 관계들과 책무관계 (accountability) 속에 살아가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누리고, 영적 성숙의 기쁨과 풍성한 삶을 향한 발걸음을 누려가기 시작합니다. 절대 혼자서는 할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소그룹 공동체로 모여 함께 Life Together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목장에 참여하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목장은 사고 모임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며,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가장 근본적인 관계입니다. 목장에 참여함을 신앙의 필수로 여겨주시고, 될 수 있는 한, 삶의 여건을 조성하여, 미룸 없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우리를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목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목장 내에서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사랑을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믿음을 낳을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귀한 만남들과 지체들이라 믿으며, 서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의 삶과 관계들 가운데서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또한 목자님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말아주시시오. 우리 목자님들 또한 목원 식구들을 위해 이미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목장 참여에 관한 요청과 더불어 오늘은 MID Group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 고자 합니다. 빌리지에서 목장사역이 시작된지 23년째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목장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사역을 위해 수고해주신 수많은 지체들께 다시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 노고와 기도들 위에 오늘 우리가 서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견고히 빚어져온 우리 한인부 목장사역의 방향과 원리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며, 매우 건강한 가치관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현재 방향에 입각한 목장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몇년간 한인부 공동체와 목장사역을 보며 관찰한 사실은, 시간이 흘러가고 한인부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이 점점 더 다양해지면서, 기존 목장의 운영 요건들이, 모든 성도님들께 BEST FIT은 아닐수 있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니어분들의 경우입니다. 시니어분들의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목장 참여를 위해서는 모임의 장소나 시간, 형식 등이 조금 다른 성격을 띄고, 가치를 반영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해서, 인격적 관계를 누려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됨의 모습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MID Group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ID Group은 빌리지 한인부 성도님들 중, 일반 목장을 참석하시는데 특별한 제약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모이며, 믿음의 성장과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습득하고, 실천하는 소-중그룹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상 목장과 유사하지만, 모임의 사이즈가 30명까지 가능하며, 모임의 장소가 교회이고, 모임의 빈도가 한달에 두번이며, 모임의 시간이 평일 오전입니다. 특별한 몇명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을 향한 목회적 돌봄을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의 리더가 있되, 참여하는 모두가 서로를 향한 관심으로 돌보고, 아끼고, 사랑함을 실천하는 원리의 공동체입니다. 성경공부나 영성훈련 등을 통한 신앙 성장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 공동체, 세상을 섬기는 일에 가치와 방향을 두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해당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